

1991年度郷土史料4冊、募集、
横城斗 6.25 戦争

(第10号)

発行 1991. 5. 31.

横城文化院

전쟁의 경과와 호국의 장(壯),

초기 전투와 소양강 선멸전

북쪽의 기습공격과 국군의 분진

1950년 6월 25일 38선, 산하에 고요히 낫은 비가 내리던 새벽 04 : 00운명의 북쪽군 공격개시 신호가 밤하늘에 포물선을 그리자 38도선 북쪽에서는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5천년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민족상잔의 폭풍을 휘몰아 오게 한 한국 전쟁의 시초였다.

전투 초기의 무질서한 철수와 혼란을 수습한 아군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T-34 전차와 성능이 우수한 적 포화 앞에서는 대전차 화포(2.36"로켓포 및 57 대전차포)와 용사들의 육탄공격에도 한계가 있었다.

서부전선의 후퇴 : 적 주공이 겨향된 의정부 북방의 아군 제 7사단 정면에는 북쪽군 제 3, 제 4의 2개 사단이 포천, 동두천에서 의정부, 서울을 목표로 물밀듯이 남하하고 있었다.

국군 제 7사단이 질서없이 철수중 수도 경계 사령부 제 3연대가 제 7사단에 증원되어 송우리(松隅里) - 축석령(祝石嶺)에 투입되었으나 의정부 방어의 요충지인 축석령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던 작전상의 오류로 제 7사단은 고전한지 얼마되지 않은 25일 오전에 이미 의정부 - 덕정선으로 후퇴하였다.

더구나 후방 제 2, 제 5 후방 사단의 병력을 미처 부대건제를 고려할 사이도 없이 축차적으로 마구 투입하는 졸연한 용병의 우(劣)를 서슴없이 저절렸으며 승산이 전혀없는 무모한 역습을 강요하여

전투력이 급속히 손실 되었고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리하여 26일에는 의정부 가 실패되었고 28일에는 어이 없게도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군은 한강 철교를 조금하개 폭파함으로써 그 이북 서울 근교에 투입된 6개 사단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수(漢水) 이북의 전투력이 중단 되고 모든 장비를 유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개전 불과 3일만에 국군의 전력은 거의 상실되고 만 것이다.

한편 국군 제 1사단은 고전 초기에 북쪽군 제 6 사단의 기습으로 개성 일대의 제 12연대가 흡어지게 되었으며 적성 전면의 제 13 연대는 북쪽군 제 1사단의 집중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입진고 폭파에 실패함으로써 방어에 유리한 입진고 하천선을 활용하지 못하고 봉일천(奉日川) 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 이 방어선에서 제 1사단은 증원된 제 5사단의 1개 연대의 한세하여 28일 밤까지 적을 지연시키다 서울이 함락되자 이산포(二山浦) - 행주(幸州) 니루터에서 한강을 도하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미 김포반도에 적이 침입하였으므로 남북 양쪽으로 부터 북쪽군의 압력을 받아 제 1사단 또한 도하 처지에서 병력이 분산되었다.

용진 반도에서는 북쪽군 제 14연대가 공격을 개시하는 즉시 국군 제 17연대 방어계대 중앙을 돌파하였다. 이 때문에 제 17연대는 동. 서로 양분되고 26일 14 : 00 에 해군의 수송선편에 의해 인천으로 철수했다.

중부전선의 승리 : 국군 제 6사단은 춘천에 제 7 연대를, 흥천에는 제 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 19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원주에 접결되어 있었다. 조공(助攻)으로서 중동부 공격을 담당한 북괴군 제2군단은 공격 당일에 춘천을 전령할 계획으로 그 예하 제2사단을 화천-춘천선에서 투입하였으나 아군 제7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 하였다.

26일에도 북괴군은 방어에 유리한 봉의산 정면에서 또 다시 큰 타격을 받아 공격이 좌절되고 소양강은 그들의 피로 물들었다. 당황한 북괴군 제2군단장은 홍천을 공격중인 제7사단의 일부 병력을 춘천 정면으로 증원시켰으나 역시 제6사단 용사들의 분전으로 격멸당하였다.

이 무렵 제6사단은 육군본부로부터 서부전선의 위급한 상황을 통보받고 전전선(戰線)의 군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8일 낮 춘천에서 물러나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홍천에서도 제6사단 제2연대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면서 적의 남하를 저지 하였으며 26일 홍천 맏고개에서는 북괴 전차 10여대를 파괴하는 등 적의 전격에 치명타를 가하였다.

춘천 및 홍천에서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제6사단은 6월 30일 홍천에서 철수하여 횡성-원주-충주를 거쳐 8월 1일 낙동강 전선에 배치 되기 까지 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초 북괴군의 작전인, 제2군단이 춘천-이천-수원으로 우회하여 국군을 한강 이북에서 섬멸하려는 공격 계획은, 국군 제6사단이 완전히 백제화시켜 유엔군이 증원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였으며 아울러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니 제6사단의 춘천, 홍천 전투

약말로 만고(萬古)에 빛날 승리의 금자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부전선의 지연전 : 동부전선과 동해안을 담당한 국군 제 8 사단은 50년 6월 10일을 전후하여 오대산 일대에 집투한 60여명의 무장공비 소탕에 대부분의 병력이 투입되었던 터라 북의의 커습에 몹시 당황하였다.

적은 북괴군 제 5사단을 양양·주문진·강릉으로 남진케하였고 해상으로 침투한 북괴군 제 766부대(유격대)와 제 549부대(육전대)를 정동진(正東津), 등명동(燈明洞)과 인원전역(院院津)에 상륙시켜 강릉을 남북에서 협공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2개 연대 편제이던 제 8 사단은 38도선을 담당한 제 10연대로 하여금 주지항선(주전투거대 : 遼谷川)을 방어하게 하는 한편 산척에 주둔한 제 21연대를 강릉으로 이동시켜 군선강 방어선에서 북상하는 적을 저지 하다가 27일 저녁에 대관력으로 철수하고, 전투력을 정비한 제 8사단은 28일 아침 강릉을 목표로 공격하였으나 때마침 육군본부로부터 철수 명령이 하달되었으므로 강릉 공격을 단념하고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제 8사단의 강릉 공격은 비록 목표를 탈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측방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북괴군 제 5사단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바꾸어 말하면 적은 평창·영월 일대에 병력을 투입하여 측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동해도로든 따라 남쪽으로 직행하지 못한 반면 아군은 울진 영덕선에서 전투부대(제 3사단 제 23연대)를 배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8월초 까지 포항은 아군이 확보하여 부산 우방측에 대

한 적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춘천 승전보

춘천 지역의 38선 방어는 국군 제 6사단(사단장 **金鍾五** 대령)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예하 제 7연대는 춘천에, 제 2연대는 홍천에 각각 주둔하여 38선 방어에 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춘천지구의 제 7연대는 6. 25 발발 직전인 4, 5월경부터 이상한 적정(敵情)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대장 인부택(林 **福澤**) 중령은 6. 25전일에 전방 대대에 대하여 경계를 보다 강화토록하고 전 장병의 주말 외출을 금지시켰다.

제 7연대는 적이 침공을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병력과 장비면에서의 엄청난 연세를 무릅쓰고 오직 구국의 일념 아래 침착하게 용전에 용전을 거듭했다. 7연대는 사북면(沙北面) 적안리(芝安里), 북산면(北山面) 부용산(芙蓉山) 그리고 동산면(東山面) 조양리(朝陽里) 일대의 방어 전계에서 난질을 가해 오는 적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다가 전차를 앞세운 적의 화력에 밀려 국부적인 저항을 하면서 후방 전계로 철수, 춘천 외곽 방어선에서의 일전을 기다리게 되었다.

춘천을 향해 진격해 오는 가공할 북괴 전차를 초기에 선명하게 위해 제 7연대는 57미리 대전차 포 중대의 심일(沈鎭) 중위를 필두로 4명의 대전차 파괴 특공조를 춘천 외곽에 파견하였다.

4명의 특공조는 춘천 외곽에서 도로변에 잠복하여 대전차포로 적 전차를 명중 시켰으나 적 전차는 여전히 전진하였다. 이에 특공조는 육탄으로 적 전차에 돌격하기로 작정하고 6월 26일 춘천 외곽 옥산포(玉山浦) 지점에서 심일 중위를 필두로 한 육탄

4용사가 예상 접근로에 잠복하였다가 적 전차(자주포)를 측면 기습, 해커 속으로 화염병과 수류탄을 집어 넣어 적 전차 2대를 화염에 싸이게 하였다.

이처럼 십 중위가 육탄으로 전차 2대를 파괴한 사실로 제 7연대 장병들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육탄으로 적 전차를 고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춘천 전투에서 육탄의 용사들이 과감한 돌격으로 적 전차를 불사른 사실은 춘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한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군의 용맹성의 상징적 표본으로서 춘천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빛나게 하였다.

국군 제 7연대는 춘천 외곽의 방어선에 적이 도달하자 최후의 일전을 전개하였다. 춘천 전투에서 국군 제 7연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 제 2. 제 7 사단에게 돌이킬수 없는 출혈을 강요하였으며 6월 25일 상오중으로 춘천을 점령하려 하였던 적의 작전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

특히 제 16 포병대의 활약은 춘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는데 제 16포병대대(대대장 소령 **全聖**)는 춘천시 정면을 향해 우두(牛頭) 평야로 몰려오는 적의 밀집부대를 정확한 조준 포격으로 강타하였다.

적은 6월 25일 상오에서 27일 하오에 걸치는 만 3일동안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필사적인 소양강 도하 작전을 강행 하였으나 도하하는 적의 무리는 제 7연대의 정확한 포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현 춘천시장(市場)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국군 105

포병대대는 우수한 적의 화력에도 동요됨이 없이 파상적으로 지리를 옮기면서 침착한 일발필중(一發必中)의 포격으로, 전

건하여 오는 적 부대를 선멸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춘천 전투에서 북괴군은 제 2 사단 포병 사령관을 포함하여 6, 572명의 전상자를 내고(북괴 제 2사단은 약 40%의 전투력 상실) 102명이 포로가 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으며 11대의 전차와 7대의 자주포를 포함한 무수한 중장비를 상실당하였으니 혈전 3일(日) 2야(夜) 후 우두평야는 적의 시체로 산을 이루었고 소양강은 혈하(血河)로 변하였다.

그 후 제 7연대는 수도 서울의 함락으로 전선의 균형을 위하여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홍천 방면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춘천 지구에서의 승리적 후퇴는 개전초기 각 전선 중 유일할 통쾌한 승전보로서 아군에게 필승의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적의 춘천 진격이 3일간이나 아군에 의해 지연됨으로써, 우회 기동으로 수원과 이천을 연하는 선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국군의 주력을 선멸하여 남침 목적을 달성하려던 그들의 소위 속전속결의 기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켰으니 이는 6. 25 동안 초기 전황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가장 중요한 전승의 하나였다.

한편 춘천 전투의 승리에는 보이지 않는 강원도민의 활약이 컸었는데 경찰, 대한 청년단원, 춘천중, 춘천사범학교 학도 호국단 학생들이 자진하여 포탄 운반에 인하였고 총을 들고 북괴군과 혈전을 간행하였으니 춘천 전투는 강원도의 총력전의 한 표본으로 남아 있다.

홍천 전투

38선 접경 지점인 홍천 지역을 방어한 국군 제 6 사단 제 2연대

(연대장 咸炳善 대령)는 6. 25 직전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한 것으로 판단, 상부에서는 6월 23일을 기하여 비상 경계를 해제하고 외출 외박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격 보강 작업을 계속하고 병력을 연내 대기시키는 등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6월 25일 새벽 적은 마노진(馬奴津) 너루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제 2연대는 마노진 근처 관대리(冠峯里) 전격에서의 대대적인 기습시격으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다음 방어전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적에게 전차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히며 어론리(於論里)를 중심으로한 좌우 간격 고지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적은 마노진 너루에 도하 시설을 완성하고 T-34 전차를 앞세워 공격해 왔는데 전차의 파괴가 승리의 최대 관건이었다. 이에 어론리 방어전에서는 강승호(姜承鎬) 소위가 지휘하는 전차 특공 대원 20명이 결성되어 신남리(新南里) 남쪽 저지에서 육탄 공격으로 적 전차 2대를 격파, 적의 전차 공격력을 파괴하였다.

제 2 연대는 어론리에서 적의 기세를 제압하고 자은리(自隱里)로 철수하여 전열은 재정비, 방어선을 다시 편성한 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면서 최후 결전장으로 철정리(철정리(哲亭里) 부근 말고 개를 선택하였다.

철정리 일대의 지형은 홍천의 관분으로서 큰 말고 개와 작은 말고 개가 44번 도로와 부근의 저지대를 감제하며, 작은 말고 개를 통과하는 도로는 구벽진 곳이 많기 때문에 대전차(對戰車) 방어에 유리하였다. 제 2연대는 말고 개 방어의 중전을 전차를

격퇴하는데 두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생사를 가늠하는 결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6월 28일 적은 전차 10대를 일세우고 날고개를 넘어오기 시작하였는데 국군은 574대 전차 포탄을 적전차에 명중시켰으나 효용이 없었다. 이에 육탄 특공조를 결성하였는데 제 2연대 대 전차 중대 제 2소대 제 1분대장 김 학두(金學斗) 일등 중사와 조 달진(趙達珍) 일병등 20여명의 특공대는 전차 예상 침투로에 잔복하였다가 전차에 가까이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전차 측면에 뛰어 올라 전차 해체를 열고 수류탄을 투척, 전차 10여대를 격파하였다. 날고개 전투에서 아군의 필사적인 사투(死鬪)로 적은 막대한 인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제 6사단은 전선의 군형상 총주로 철수하였지만 날고개의 전차 섬멸전이야말로 개전 이래 한 장소에서 최대의 전차 격파하였던 전투였다. 이로 날고개에서 적의 홍천 전력의 이틀이나 지연됨으로써 춘천에 이어 두번째로 북괴군 제 2군단 작전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50년 6월 28일은 수도 서울이 실함(失陷)된 최악의 날이지만 중부 전선 홍천 13 KM 지점의 날고개에서는 국군 제 2연대가,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괴군 제 7사단의 보. 전. 포(步戰砲) 협동공격을 격멸하고 전차 10여대를 단번에 파괴함으로써 용맹을 안팎에 떨치고, 북괴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날이기도 한 것이다.

6월 29일 현재 서부전선에서는 분산된 6개 사단을 통합하여 한강 방어선을 편성중에 있었으며, 동부 전선에서는 제 8사단이 하진부를 떠나 제천으로 철수 중에 있었는데, 홍천의 제 2연대

는 유일하게 홀로 38선 서쪽 20 - 25 KM까지 전 부사원(府司院) 고개 - 맑고 개선에서 적을 저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흥천 계구 전투에서도 대한 청년단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전장의 화염을 뚫고 주력방과 탄약을 운반하는 등 강원도민은 조국 광토를 수호함에 조국도 주저하지 않았으니 이는 흥천 전투 승리의 초석이 되었다.

강릉계구 전투

강릉계구 38선 거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 8사단(사단장 李成佳 대령)은 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면으로 공격해 오는 북괴 제 5사단, 명주군 강동면의 정동진(正東津)과 산척군 원덕면의 인원진(院院津)으로 상륙해 온 북괴 특수 유격대인 제 766부대 및 제 549부대의 포위 공격을 맞아 현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국군 제 8사단은 제 10연대 1개 연대만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제 21연대는 산척부근에서 공비 소탕작전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제 10연대는 현전선에서 적을 적극 저격하며 제 21연대는 강릉으로 집결하여 사단 주진지(主陣地)인 연곡(連谷) - 사천(沙川)선에서 적을 격퇴하고 강릉을 사수할 것을 결의 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강릉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릉계구의 경찰 및 청년 방위대에게 자체 방위 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현남면 인구리(仁丘里) 일대의 전진진지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던 제 10연대 장병들은 적의 치열한 화력에 밀려 연곡 - 사천진지로 축차적인 철수를 하였던 바, 제 10연대 정면의 적은 구룡령(九龍嶺)까지 진출하였고 인원진으로 상륙한 적은 산척으로 공격중이었으며 정동진으로 상륙한 적은 옥계(玉溪)를 전령하였다.

제 8사단은 6월 27일 연곡 - 사천 방어선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다음날 강릉을 수호하기 위해 대관령으로 일단 철수, 그곳에서 부대를 정비하여 전세를 역전시켜기로 결정하고 하진부(下珍富) 일대에 집결하였다. 8사단은 강릉 탈환을 목적으로 반격을 개시하던 중 전선의 균형상 육군본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제천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 8사단은 초기 전투에서 강릉 지역을 3일간 방어함으로써 적에게 심한 타격을 가하고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아군의 지연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제 6사단과 함께 낙동강 전선까지 지연전을 실시하는 동안 국군의 핵심이 되어 가장 어렵고 막대한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지연전과 반격

미국의 참전과 지연전

북괴의 불법 남침에 따라 미국 국무성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은 6월 25일 정오였다. 미국은 26일 새벽 3시 남침 개시 23시간 만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괴에 공격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명하였다. 그러나 북괴는 불응하였고 이에 국제연합은 1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의 결성과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참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 군대, 각국의 의무대, 병원선 그리고 국군은 모두 유엔군 사령부의 관장하에 놓여졌고 맥아더 장군이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미국이 극동 전략을 변경하면서 한국전에 참전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의 팽창이 서구 우방국과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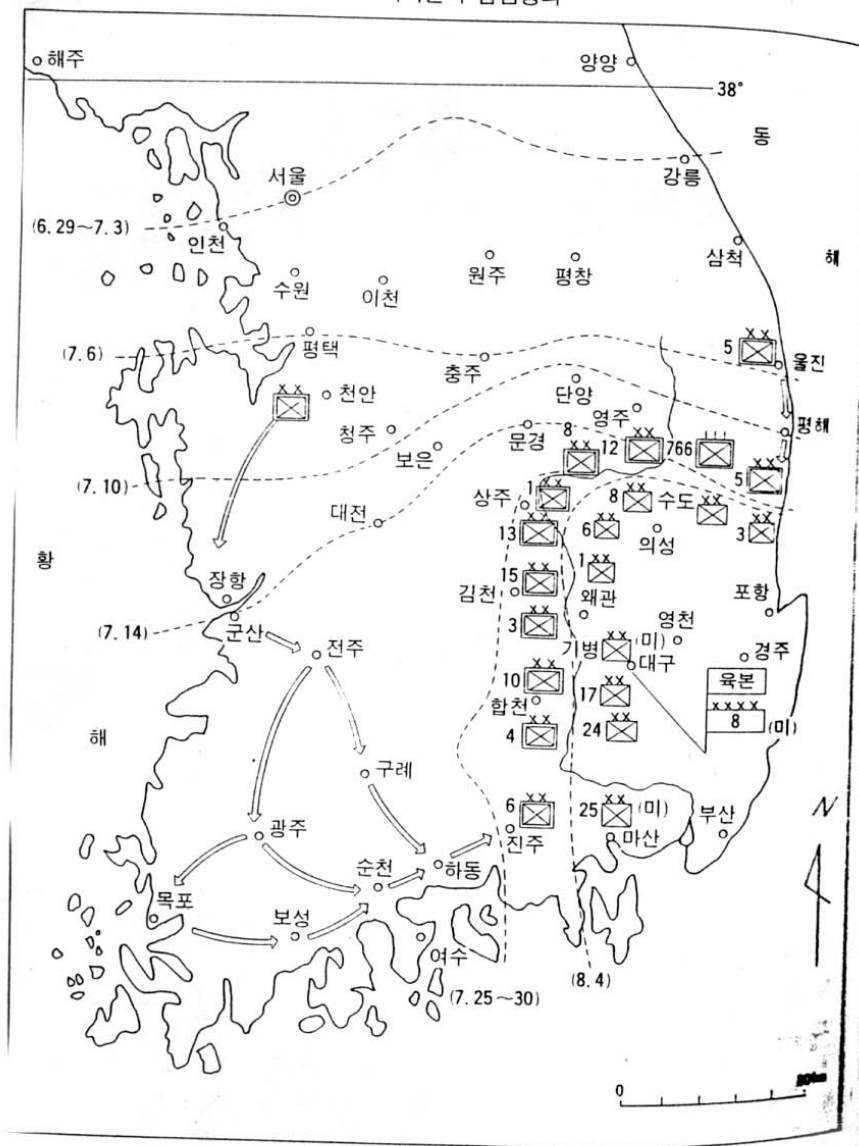
효과를 의식한 조차일 뿐 한국의 내제적 또는 거역적 가치를 고
려해서 취해진 것은 아니었다. 즉 국동이 전략적으로 유럽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헌도에 있어서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북괴군이 6월 28일 서울 시내에 진입한 이후 한강선을 돌파하는
데에 1주일이나 소요되어 아군은 유엔군 참전의 시간적 여유를 확
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강 방어선에서 김 홍일
(金弘壹)장군의 작전 계획 아래 국군이 사력(死力)을 다하여
북괴군의 도하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
하여 맥아더 장군은 직접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주일(駐日)미
제상군을 신속히 한국에 투입시켜 북괴 주공(主攻)정면에 배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첫 전투가 미 제 24사단 제 21연대 제 1대대 스미드(Smith)
특수인무 부대에 의한 오산 북방 죽미령(竹美嶺) 전투였다. 그
후 미제상군이 계속 증원 되면서 북괴군은 교통망이 비교적 발달된
서부 전선을, 한국군은 산악이 많은 중동부 전선을 각각 담당하
게 되어 전차 방어전 체계가 정돈되어 갔다. 아군은 자연전을 떠
가면서 전열을 재정비,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안 및 대전 전투에서 적을 3일 이상 저지함으로써 국군은
미 제 1기병사단을 투입할 수 있었으며 7월 중순 미 제 8군사령
부가 대구에 설치되고 국군이 창설되면서 초기 전투 실패의 충
격에서 벗어나, 때마침 창설한 2개 한국군 군단과 함께 전전선
(全線)을 재정비하여 전투 태세를 가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 제 1기병사단, 제 25사단, 제 2사단을 비롯하여 해병
여단과 강력한 독립전차 대대 등의 전투 부대들이 속속 한국에 증

북괴군의 남침경과



파되어 전투력이 나로 증강되고 있었으므로 대전 전투가 끝날 즈음에는 이미 피아 전투력의 균형이 반전되는 중이었다.

아군은 자연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북괴 공격부대에 치명적 손실을 입혀 갔으니 중동부 전선의 국군 제 6사단과 제 8사단은 병력과 장비의 체계를 유지해가며 체계적인 방어전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제 6사단 7연대의 가리파고개 방어전의 패기는 무모하게 진격만을 일삼는 북괴군을 풍기박산시켰다. 가리파고개는 원주 동남쪽 12 KM 거전에 위치하며 원주 - 제천의 관문으로서 고려 때 함단적(哈丹賊)의 침범과 인견왜란 당시 왜적의 침공은 선명한 영원산성(永源山城)으로 널리 알려진 전략적 요충지이다.

아군은 이 가리파고개에 은밀히 매복하였다가, 남하하는 북괴군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를 선멸시켰던 것이다.

북괴가 개전 초기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전선을 돌파하였으나 조기(早期)에 그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정적 승기를 놓친 것은 대체로 국군과 UN 군의 효과적인 기연작전과 공군의 후방 차단 작전에 힘 입은 바 크지만 북괴군의 경직(硬直)된 광정면(廣正面)포위작전의 고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괴군은 모든 가용 전투력을 전(全)정면(正面)에 적절히 군 등 배치해 놓고 양호한 거동로가 없는 지역에서도 광대한 우회 포위작전, 즉 소위 일점양면(一點兩面)전을 펼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력의 소모를 감수해야 했었던 것이다.

한편 아군의 초기 전투의 실패는 기본전력의 열세에 못지 않게 국군의 전장 척도력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50년 6월 10일에 있었던 군고위(軍高位)인사이동, 23일의 비상기연 해제, 수

많은 남침 첩보의 무시, 혼란의 극에 달한 의정부 정면의 병력 투입 등은 결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낙동강 방어와 인천상륙

북괴군은 피아의 전력군형의 반전(反轉)과 전쟁 수행능력 강퇴에도 불구하고 광정면(廣正面) 접근방식을 계속하며 공격의 기세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방어작전에 대한 책임을 위인발은위커(Walker) 미 제 8군 사령관은 낙동강의 천연적 장애물을 활용하여 북괴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천하였던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은 대략 8월 4일경 이루어졌는데, 모든 군과 국군은 낙동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남북 약 160 Km, 동서 약 30 Km의 직사각형 방어전지를 구축하였다. 이군은 대체로 서쪽 낙동강변상에 배치되고 북쪽 산악지역은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아군이 개전 이래 최초로 일련의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하여, 양호한 하천 방어 지형을 활용함으로써 북괴의 득의(得意)의 전법이라고 할 이른바 일점양면전(一點兩面戰)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UN군의 제공권 장악은 북괴군의 작전 행동을 야간으로 제한시키는 한편, 전투력의 집중과 후방 병참 지원마저도 곤란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전투의욕과 사기를 끈 인연이 저하시켰으니 북괴군의 지속적인 공세작전은 그 한계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한편 50년 8월, 9월에 걸쳐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북괴의 공격이 한창인 때, 맥아더 사령관은 신화(神話)와 같은 인

인천상륙작전을 계획, 추진중이었다.

인천지역은 9미터 이상에 달하는 간만의 차와 깊고 좁은 수로등으로 상륙작전에는 최악의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천상륙작전의 시도(試圖)는 제2차 대전 전형의 시대 착오적 작전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많은 고위 군사전문가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계획관 단 한사람의 비야전교범적(非野戰敎範的) 계획과 독선적(獨善的)인 결단 에 의해 인천 상륙작전이 신화와 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맥아더 사령관의 야심적인 계획의 수립과 경이적인 속도의 준비, 그리고 과감한 작전의 수행과, 화려한 성공 등 모든 면에서 전사(戰史)상의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작품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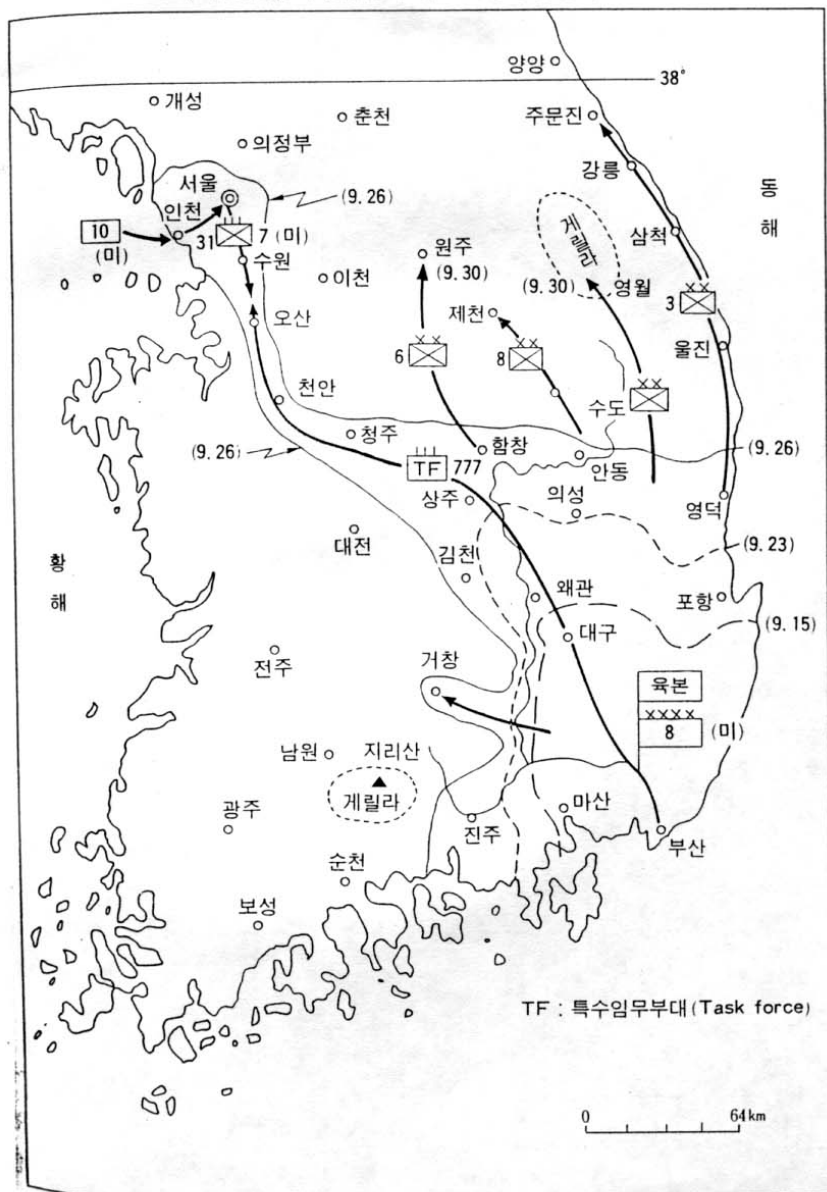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9월 16일 남동강 방어선 전정면(金正面)에서 아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아군에 의해 서울이 탈환되자 북쪽 6개 사단 이상은 남한내에 고립됨으로써 사실상 전전력(全戰力)이 분산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UN 군은 반격을 개시한지 보름만인 9월 말경에는 38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원 수복과 북진의 실패

북진

북쪽군이 제멸되고 38선을 회복하였을 때 UN 군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였는데, 그 첫째는 UN 군이 북진을 더 이상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사항으로 걱거없는 혼란(混亂)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민의 결의와 맥아더의 주도하에 대체로 소련과 중공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 제 10군단의 인천상륙 및 UN군의 총반격



별히 유의하면서 북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북진 계획인데, 맥아더 장군은 일찍부터 미 제 8군으로 하여금 평양 - 신의주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고, 미 제 10군단(미 제 1해병, 제3, 제7사단)은 인천과 부산으로 철수하여 원산 일대로 우회 투입하는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계획한 반면,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상륙작전보다는 육로(陸路)로 계속 진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 자신이 미 제 10군단을 계획함으로써 전한반도에서의 계획의 통일을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는데, 북진은 맥아더의 북진 계획에 의거 수행되었다.

북진군의 퇴각은 완전한 패주 그 자체였고, 방어전력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북진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특히 국토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에 차있던 한국군의 진격은 실로 경탄할 만한 속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국군은 기동수단이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미군보다 훨씬 앞서, 10월 11일에는 원산을, 10월 17일에는 함흥, 흥남을 점령하였으며,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하였을 뿐 아니라, 10월 26일에는 국군 제 6사단 제 7연대가 압록강의 초산(楚山)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북진의 선봉 양양(襄陽)진격

강원의 수복은 한국군 제 1군단(제 3사단과 수도사단)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 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 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명령 제 109호를 발하였다. 30일 현재 제 3사단 제 22연대(연대장 김 응조 중령)는 강릉을 탈환하였고, 제 3사단 제 26연대

(연대장 김 척업 대령)는 산척에서 LST로 출항하여 주문진에 상륙하여 집결중이었다.

양양탈환을 앞둔 이날 3사단의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사단 제 18연대(연대장 임 충식 대령)는 38선 남쪽 2 KM 거점 서린리(西林里)로 진출하여 서린 - 양양 가도를 따라 양양의 서측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10월 1일, 05:00경 제3사단은 제 23연대(연대장 김 종순 대령)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의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양양 38선 지역에서 북쪽 제 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 날 10:00경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38선을 넘는 순간 이북 강원 주민들은 구겨진 태극기를 꺼들고 환호하면서 관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국군은 저주스러운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리고 뚝다시끼 38선을 넘어던 것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던 것이니 동해와 태백산맥은 통일외계의 첫 진격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곧 이어 수도사단도 양양서측으로 진격, 10월 2일, 3일에는 양양을 지나 관성까지 진출하였다. 적은 거의 패주로 연속하였다.

국군 제 1군단 전면의 북쪽군 제5, 제12, 제15사단은 그 주력을 원산으로 북상시켜면서 엄호부대로 하여금 아군의 진전을 지연케 하였다. 한편 북쪽군은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악산과 향토봉 일대의 산악지대로 일부병력을 잠입시켜 기습을 노리고 있었다. 이에 국군 제 1군단 사령부는 이들을 선멸할 목적으로 군단 직할하에 제 3, 제 5 유격대를 편성하여 패잔병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제 3사단과 수도사단의 경쟁적인 진격으로 적은 관성을 포기하고

고성으로 퇴각해 갔으니 국군은 신속한 추격으로 역사적 문단선인 38선을 돌파하고, 실거 회복의 거도를 내릴게 되었던 것이다.

마석(磨石)피난

국군의 전격은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잔적(殘敵)을 뒤에 남겨두게 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깨잔병이 은신하였다. 국군의 대부분의 주력이 북진에 참가함에 따라 후방 병력이 소원함을 틈타, 강원도의 이들 잔적들은 잦은 침공을 시도하였다.

아군의 전격적인 북진으로 퇴로가 곤궁한 잔적들은 강원도의 산악지대를 따라 북상을 기도하면서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를 습격하고 살인, 방화, 약탈을 서슴지 않았으니, 10월 1일 울진 습격, 10월 15일 삼척 습격, 16일 강릉 습격, 19일 주문진 습격등이 그 예이다. 이들 잔적들은 북쪽 제5, 제7, 제8 사단의 패주병 약 2만명으로서 그 규모나 세력이 만만치 않았는데 테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다가 보급이 곤궁하고 국군과 경찰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아 속초, 통천을 거쳐 내륙 방면으로 패퇴하고 말았다.

위 습격사건들은 잔적들이 퇴로와 보급이 곤궁한 상태에서 퇴로를 열고 식량등은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하여 50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춘천 재침의 경우는 보다 조직적인 전면적 침공이었다. 근강산에 접경했던 잔적(殘敵)의 대부대(大部隊)는 국군의 북진으로 방위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철원, 평강, 양구, 화천을 지나 춘천으로 침공해왔다.

당시 북쪽 깨잔병의 규모는 약 1만명에 달한 반면 우리의 방위력은 근경 한하여 약 2천명에 불과했었다. 그리하여 아군은 중과부

적(衆敵不敵)으로 11월 14일에는 화천 양구에서, 다시 11월 18일에는 춘천에서 각각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경찰대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맹렬한 반격전을 감행하였고, 경찰사령부는 흥천으로 이동하여 춘천 재탈환작전을 준비하였다. 춘천 재탈환전은 국군의 병력이 부족하였기에 주로 경찰이 혈전에 의해 이루어져 강원 의 자책방위력을 증명하였던 바, 당시 치안국 보안과장이던 최 치환(崔致煥)의 진두지휘 아래 전경(戰警) 제9대대는 춘천의 적중(敵中)을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춘천은 패잔병에게 빼앗긴지 2주일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춘천 주민들은 수복의 환희를 맞고자도 편에 11월 18일 피난의 쓰라림을 다시 겪어야 했는데 피난민들은 마석(摩石)에 집결하였다. 당시 정부는 강원지방 피난민이 서울로 유입하는 것을 극력 방지하였는데, 그것은 춘천 피난민들로 인하여 심리적 영향이 서울 시민에까지 파급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난민들을 마석 국민학교 교정을 비롯한 몇 곳에 천막을 치고 집단 수용하는 한편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했는데, 당시 새로 탈바꿈한지 얼마되지 않은 강원적십자사는 구호활동에 참여, 큰 활약을 담당하였다.

강원도민들은 춘천을 재탈환하였으나 곧 중공군의 침입으로 또 다시 엄포실한속에 고향을 등진 피난의 여정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과 1·4 후퇴

북진(北進)의 허실(虛實)과 중공군의 개입

국군의 계속 전격이 계속되고, 그 선두부대가 한·만 국경선까지 진출하였던 10월말 한반도에는 민족통일과 전승(戰勝)에 대한 희망

찬 기대가 가득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북진(北進)에는 전투 태세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 허점을 노리어 또 하나의 거대한 전략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허점이란 미 제 8군(사령관 위커장군) 과 제 10군단(군단장 압몬드 소장)이 각각 남릴산맥의 서와 동으로 분리되어 상호 협조가 곤란하였고, 후방 각지에서 북괴 패잔병이 게릴라화함에 따라 아군의 반(半) 이상이 이들의 소탕작전에 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용 전투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북괴 게릴라들의 활동과, 병참선의 연장은 병참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중공군은 북괴 남침당시부터 북괴를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순치 기간(唇齒之間)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군이 초산(楚山)에 도달할 즈음에는 이미 일부 병력을 알록강 건너 초산에서 온정리(溫井里) 사이의 산악지역에 잔복시켜 승승장구하는 UN 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국군 및 UN 군의 진격속도가 의외로 신속하여 그들의 반격 근거지(江界-滿浦金邊 지역) 까지 위협받게 되자 중공군은 일단 이를 저지하고자 제 1차 공세를 감행하였다.

중공군은 정면 공격을 회피하면서 사전에 다수의 병력을 종심 깊게 침투시켜 아군의 후방 병참선과 퇴로를 차단한 후 포위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는데 국군 제 1사단, 제 6사단 등이 한 때 중공군에게 포위되었고, 더 제 1기병사단은 이른바 군우리(軍隅里)의 벼곡을 맞이하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커장군의 적절하고 과감한 조치로 11월 초순 피아쌍방은 청천강 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어 전선은 일단 안

정되었다. 이 상황에서 UN 군은 당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군사적 이점을 살려 신속히 국경선을 회복하려고 위력수색(威力搜索)의 성격은 먼 전정면(全正面) 공격을 개시하여(소위 크리스마스 공세) 일부 전선을 회복하였으나 오히려 중공군의 총반격에 부딪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군은 UN 군의 작전을 제한할 수 있는 중부 산악지대에 집결하여 제 8군과 제 10군단 사이의 무인(無人)지대를 돌파한 후 낭림산맥을 따라 남진하면서 동시 두 개로 분리된 UN 군을 각각 서해와 동해 쪽으로 우회 포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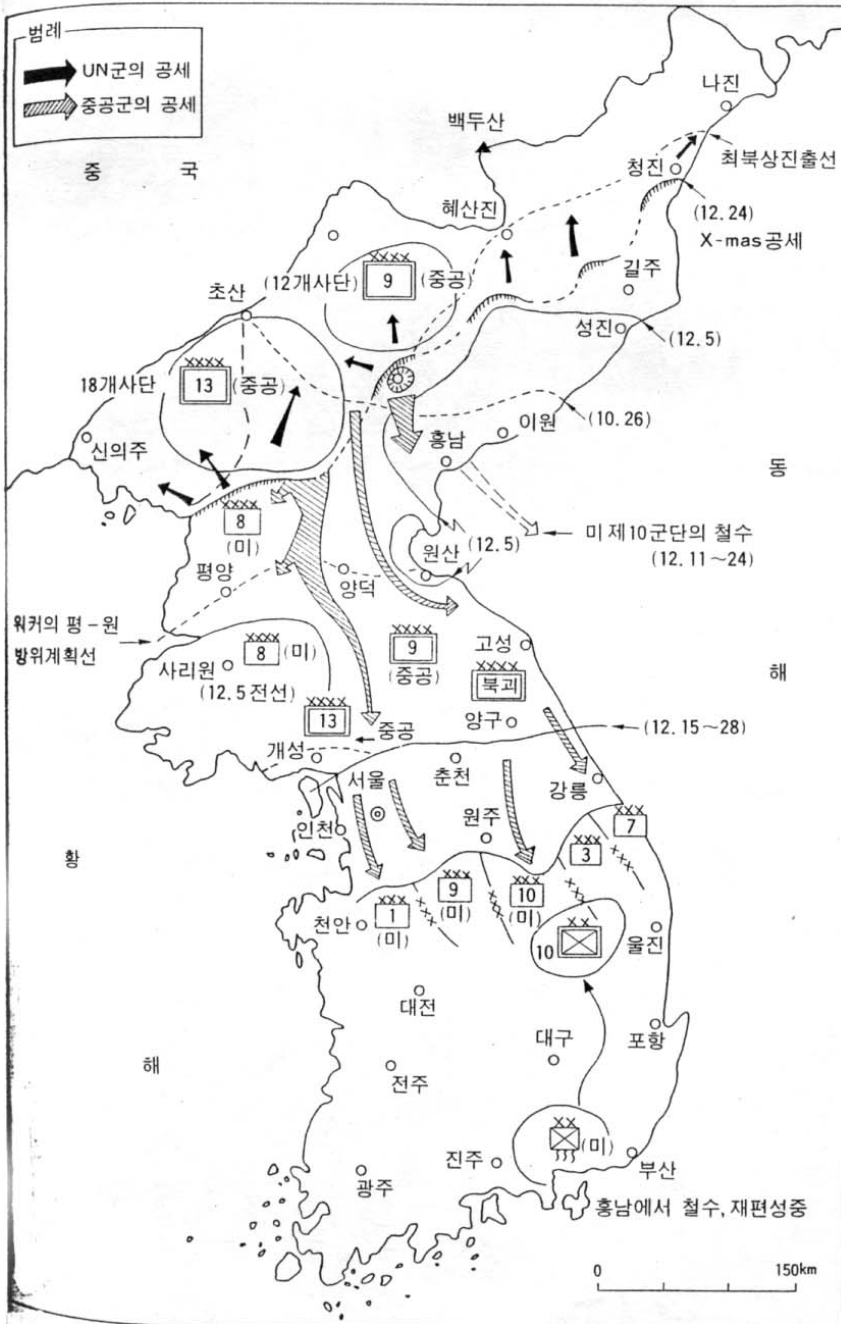
그리하여 UN 군은 흥남 철수동에서와 같이 포위망을 탈출하기에 급급하였던바, 불과 20여일 만에 압록강변에서 38선으로 전선은 밀리게 되었다. 12월 중순 38선까지 추격해온 중공군은 잠시 전열을 재편성한 다음 51년 1월 1일을 기하여 38선 전면에서 공격해 왔다.

적은 서부 평야 지역의 미군 정면에는 주로 중공군을, 동부 산악 지역의 한국군 정면에는 북괴군을 각각 투입하였다.

전선은 1월 24일 당시 평택-제천-삼척 선으로 남하하였는데 UN 군의 철수 작전은 비교적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적에게 소모전을 강요, 전투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리하여 전선이 오산-삼척선에 이르렀을 때에는 중공군의 공격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하여 올 때 맥아더사령관은 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위하여 만주 폭격과 압록강 교량의 조폭 폭파를 미국 정부에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맥아더의 제안을 묵살하였으니, UN 군은 작전행동의 범위가 크게 제약되어 만주라는 영역(聖域)을 방관하고 있어야 했다. 불한티

UN군의 X-mas 공세와 중공군 선변공세



하고 불공평한 작전이 적지 타는 애매한 이유로 간수되어야 하는 당시 민족의 안타까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강원도의 방어전

38선상의 전투 : 1950년 2월 21일 국군 제 3사단은 38선상의 홍천지구에서, 중공군의 후속 부대와 북괴군 제 2사단을 맞아 11일간이나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 적에게 심대한 전투력의 손실을 가하였다.

또한 국군 제 9사단(사단장 오 덕준 준장)은 50년 12월 23일 양양군 내면(內面) 서림리(西林里)에서 현리(縣里) 그리고 인제군 남면(南面) 부평리(富坪里)선에서 방어선을 펴고 남하하는 북괴 제 2군단의 주력부대를 타격하여 나갔다.

적은 주력(主力)인 제 2, 제 9, 제 10사단을 인제 - 양구 - 화천지구에 배치하고, 아군의 제 1군단과 제 2군단의 정면을 공격해 오며, 원갈팔(元谷八)유격 부대를 국군 제 9사단 우측방인 오대산 - 대관령 - 태극산 - 보현산 일대에 침투시켜 전반적인 후방고탄을 획책하면서 주력을 홍천 - 원주선으로 지향시켜 그들의 전술인 포위작전과 우회 전법을 구사하였다.

국군 제 9사단은 12월 31일 까지 적의 대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이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한때 적을 오대산. 평창 방향과 38선 이북으로 패퇴 시키는 등 적의 전투력을 최대한 분쇄시켰다.

원주 협전 : 1951년 1월 초순 중공군이 남침으로 중동부 전선의 철수 작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을 때 미 제 2사단(사단장 맥클레이 소장)은 아군의 철수를 연호하기 위해 원주 정면을 확보 중에 있었

다. 당시 미 제 2사단에는 프랑스 대대와 홀랜드 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51년 1월 4일 동부의 적 주력부대인 북괴 제 2, 제 9, 제 31사단은 국군 제 3, 제 8사단의 사이를 뚫고 남하, 흥천을 전령, 원주로 침공해 왔으므로 미 제 2사단은 제 23연대를 원주교외의 서북쪽인 학석리 - 안경리(萬鏡里)선에, 제 38연대를 동북쪽인 흥양리(興陽里) - 청암리(靑岩里) - 장양리(長陽里)선에 각각 배치하고 제 9연대로 하어금 원주 - 계천간의 도로를 공격해 하였다.

적은 1월 7일 원주 전정면에서 주야로 제파(諸波)공격을 간행하여 왔다. 미 제 2사단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적의 제 1, 제 2파(波)공격에 화력을 총 집중하여 물리쳤고 다시 제 3, 4파가 밀려 왔을 때는 사수와 탄약수까지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백병전을 감행, 적을 퇴각시켰으니 적이 물리간 전진(陳前)에는 적이 난간 시체가 600이 넘었으며 아군 장병들의 군복과 철모는 온통 기투성이었다.

적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 당하면서도 원주로 진입하였는데 미 제 2사단은 1월 12일 원주를 탈환하기 위한 총 반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의 우일선(右一線)인 제 9연대는 신림면(神林面) 금창리(金倉里)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회룡굴(回龍窟) 일명 또아리 굴을 경유하여 계속 북상을 단행, 판부면(板富面) 금대리(金臺里)의 해미산성(海美山城)을 점령하고 제 23연대와 제 38연대는 원주의 서측방을 공격, 원주 시내로 진입하였다.

적은 다시 1월 13일 오전 7시 대부분을 투입하여 원주를 공략하였는데, 미 제 2사단 장병은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면서 적의 주력

부대를 섬멸시키고 충주로 침수했다. 이날 사단은 160여명의 적을 사살하였는데 특히 미 제 2사단 제 37야전 포병대대는 추격해오는 적의 선봉을 강타하여 적의 공격력을 완전 봉쇄하였다.

미 제 2사단은 이 작전 기간 중 1일 평균 1천명 이상의 적을 사살하였으니 이를 추계(推計)해보면 북괴군 제 2, 제 9, 제 31사단의 인명 손실도 도합 1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미 제 2사단과 프랑스 대대 및 홀랜드 대대 장병들은 백설(白雪)이 무릎을 덮고 영하 12℃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영광의 전공을 세웠던 것이다.

이 전공을 거리기 위해 전투전적비를 세웠는데 비문의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를 뒤흔들던 포성은 잔뜩고 비오듯 쏟아지던 총탄도 사락졌다. …… 벽에 사무치는 6.25동탄으로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을 닥칠 때 입들의 몸은 방패가 되어 온 거센의 가슴에 곳곳 활살을 박았고 그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 나락을 영원히 밟을 것이다.

네델란드 참전기(參戰記)

1. 6. 25 동란과 네델란드

북해에 연해있는 유럽 북서부의 왕국인 네델란드는 6. 25당시
어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해상군을 파병할 처지가 되지 못했
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는 유엔의 요청이 있자 인도네시아에 정박중
인 구축함 에버트슨호를 7월 16일 서해에서 작전중인 영국의 극
동함대에 배속시켜 거기에 이르렀다.

한편 네델란드정부가 해상군 파병에 난색을 표명하자 유엔의 토티
이 사무총장은 7월 14일 제4차 해상군의 파병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두번째의 요청에도 네델란드정부는 파병이 불가능을 통보
했다.

그러나 네델란드국민들은 참전지원자들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한국참전지원병 인시위위원회」란 자발적인 민간기구가 조직되고 국
내의 신문들도 일제히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정책을 규탄하고 나서
으로써 네델란드정부는 어쩔수 없이 1개 대대규모의 해상군을 파
한개로 결정하고 8월 27일 지원병 모집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
다.

그 결과 정부당국에선 1, 217명의 지원자 중에서 1차적으로 7
99명을 선발하고 다시 636명을 선발하여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 창설 5주년 기념식장에서 수여된 네델란드국기와 유엔기를 앞
세우고 유리아나 여왕과 온 국민의 뜨거운 전송속에 10월 26일 포
터담항을 출항하여 11월 2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대대장 오우덴중령이 지휘하는 이들 네델란드부대 장병들은 대구
의 유엔군수용소에서 10일간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한 뒤 12월

5일 열차편으로 수원에도착 미군을 위시하여 그리스, 태국, 프랑
스, 미연방 등의 유엔군 부대들의 숙영지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수색활동과 훈련을 받았다. 12월 16일 미2사단 38연대에 배속
되어 충주 - 조령 - 한창으로 진출하여 간선도로의 방호와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때 38연대의 예하부대는
원주 - 제천 - 단양지구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51년 1월 초에는 개천 건너편의 초현리에서 첫 전투를 맞이했
다. 이 때 언급한바 있듯, 중국군의 1월 공세 때에는 원주 탈
환전에서, 그리고 2월 공세 때에는 황성과 원주의 325고지 전투
에서 용맹을 떨쳤으며 중국군의 제 1차 춘계공세 때에는 소양강
건너편의 [사오 랑고 계]에서, 2차 춘계공세 때에는 양저말과 큰물
골 등지에서 격전을 치른 뒤 5월 27일에는 미2사단 38연대와 함
께 현리 탈환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후 편지불 남쪽에 위치한 대인산과 도솔산 지구로 이동하여
대우산 공략에 참가한데 이어 그 해 10월에는 미2사단의 단장의
능선과 기일성고지 및 문등리 공략전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쳤다.
51년 12월 하순 경에는 철의 삼각지대로 이동하여 적의 전초전지
인 배꽃고지와 은성고지에 대한 거습전을 가행했는데 은성고지
거습전에서 2명이 포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번번히
실패한 배꽃고지 거습전에서 실종된 병사의 시체가 적 병커인
구에 얼어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운구할 도리가 없어 부
산의 유엔보지에 안장치 못한 유일한 네델란드 병사가 되었다.

52년 4월 중순 경부터 약 3개월간 미2사단 38연대와 함께 거
제도도 출동하여 공산포로들의 폭동으로 큰 혼란을 겪어내고 도
내의 치안유지와 불순분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동 태대는
철원 서쪽 연천 서북방과 여곡천 지역을 인수하게 된 미 2사

단에 복귀하여 전초전을 전개한데 이어 52년 12월 하순 캐나다군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사미천 동쪽 기슭의 갈현리 지역을 인수 방어했다.

53년 2월 1일 네델란드에선 큰 해일이 일어나 제방이 무너지고 국토가 해수에 잠겨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큰 재난이 일어났다. 연 이국 전선에서 이같은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된 화탄군 장병들은 재난을 당한 보국 국민을 위해 즉각 수재의연금을 각출하기 시작했고 전중이시 이러한 광경이 빚어지자 이를 목격하게 된 미 38연대 장병들은 물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미2사단의 타부대 장병들과 미1군단의 미군장병 및 영, 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등 유엔군부대 장병들이 이에 호응하여 상당액의 성금을 거두어 네델란드군 대대에 전달함으로써 당시의 언론들이 한국 전선에서 피어난 이국 전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후 의정부 북방의 덕정에서 미1군단의 예비로 있다가 5월3일 야머리로 이동한뒤 휴전은 목전에 든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4개군의 중공군 대병력이 금성저구의 돌출부를 강수 돌피했을 때에도 대대는 인수를 방어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중공군의 돌파구를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네델란드군 대대가 치른 마지막 전투는 53년 7월 25일 반전적 전방의 빈 마을에 대한 정찰전이었다. 이 정찰전에서 네델란드군 대대는 그곳에 잔류하고 있던 적병들의 기수로 2명의 병사가 생포당했으나 이 두명의 병사는 그 해 8월말 포로교환 때 귀환했다.

다음은 50년 7월 16일 한국 해역에서 작전중인 영국 곡동함에

배속되었던 구축함 에버트슨호는 해군작전에 크게 기여했고 참전 기간중 모두 6척이 고대 근무했다.

1954년 10월 중순경 커국을 앞둔 네덜란드군 대대 장병들이 부산에 집결했을 때 그들은 117명의 전우들이 잠들고 있는 유엔군 묘지에 참배한 다음 그 묘지에서 채취한 「한국의 흙」을 탄약통에 담아 본국으로 가져가 「와싱」 육군 병원에 세워져 있는 한국 참전 기념탑 밑에 묻고 전우들의 명복을 빌었다.

2. 네덜란드군의 횡성전투

특히 참전중 네덜란드 육군의 전투중 횡성 전투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전사로 길이 남는다.

횡성 전투에는 M·P 에이덴 오우덴중령(대령추서) 휘하의 부대원들이 활약했는데 북진을 위해 저금의 횡성을 북천리 공설묘지 인근 야산에 전을치고 있던 이 부대는 1951년 12월 12일 대규모 북괴군 및 중공군 병력과 맞붙어 일대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틀간의 처절하고 치열한 공방전에서 네덜란드군은 용감무쌍하게 싸웠으나 소규모 병력으로 대대병력이 적을 데적하기에는 중과 부적이었다. 이틀간의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군은 일단 후퇴하여 횡성을 읍하리 횡성 감리교회로 피신했다.

그들은 아무런 포악한 공산주의자들일지라도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야 총격전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인도주의적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잔인무도한 괴뢰집단은 성역을 무시한채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교전을 저원하는양 교회에 접근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 맹공격을 가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거의 전병력이 전사하거나 급한 급에 아군이 굴뚝 등으로 은신한 소수의 병사만이 심한 중상을 입음으로써 공산집단의 잔악성을 실감케 했다.

이 전투에서 산화한 M.P 에이덴 오우 덴중령을 비롯한 이국의 젊은이들의 뜻을 거둬고 명복을 거리기 위해 황성군은 네델란드 가스텔서(에이덴데령의 고향) 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황성읍 3. 1공원에 충혼비와 우천면 우항리 영동고속도로 새말인터체인저에 참전 기념비가 있으며 그날의 격전지였던 황성감리교회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1. 4 후퇴와 황성

중공군의 개입으로 마침내 아군의 1. 4후퇴를 가져오게 했던 51년의 전국은, 6월 23일 유엔 소련 상인대표 [말릭]에 의해 휴전이 제의되기 전까지는 38 선으로 진출하려는 아군의 반격작전군의 역공세가 간단없이 되풀이 됨으로써 불꽃 튀기는 치열한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조국통일을 눈 앞에 두고 있던 전황은 다시 말리기 시작하여 1. 4후퇴라는 전란을 겪어야만 했다.

1. 4후퇴 직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한 제1의 요충지인 원주를 비롯해서 황성지방이었다.

홍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한 강원도 남중부의 황성군은 특히 중공군의 2월 공세 때 2개군의 중공군 대병력이 홍천방면으로 진출 중에 있던 국군 8사단을 겹겹이 포위하여 악전고투를 겪게 했던 싹타린 전쟁터였다.

유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되었던 옹맹스런 네델란드군 대대 장병들이 노도같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처절한 공방전을 벌였던 혈전장이었다. 그 혈전 속에서 대대장 오우 덴중령과 그의 전중에 한꺼번에 있던 수명의 제일고표 출신 학도의 옹군이 국군을 가장한 한 부대가 중공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살당

한 슬픈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고을이기도 하다. 중공군의 2월 공세가 있기 1주일 전부터였다.

미10군단은 당시 춘천까지 남하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중공군 19병단의 행방을 탄색코자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이 때 동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아8사단은 군단 좌익으로서 5번도로를 따라 횡성-홍천-용두리선으로 전출하기 위해 주포리와 능우리 및 주만리로부터 에하 연대를 약 전시키고 있었다.

횡성 이동을 담당하게 된 아5사단은 풍안리로부터 그리고 아8사단을 엄호케 되어 있었다.

아군의 이와같은 위력수색전은 2월 10일부터 적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하다가 11일 오음산-상창봉선과 상유동-도원리선 및 도원리-풍안리선까지 전출 방어하고 있던중 12일 미명읍까지 한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케 되었다.

이 때 중공군 66군은 산마치의 21연대와 정면으로 직충하고 40군을 깔기 산 너미 16연대의 정면과 좌측방으로, 39군은 미2사단 23연대의 정면인 커평리를 직충함으로써 마침내 전세는 순식간에 급변하여 아8사단의 전방부대는 도처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소용돌이 속에 비껴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군은 휴대가 가능한 장비 이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코자 사력을 다했으나 유격적인 철수가 불가능해 21연대의 경우는 2일간 10연대의 경우는 1주일간을 포위망속에 갇힌채 적과 흑한과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이날 새벽 입선부대가 돌파된지 3시간 후에는 미2사단의 화력지원부대까지 적의 거습을 받아 붕괴되는 등 전세가 악화되자 군단장은 모든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네델란드군 대대가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있는 횡성쪽으로 도로의 계곡을 통해 빠져 나오

기 시작했다.

50년 11월 하순 청천강 남안의 군우리로부터 평양으로 철수하던 터키군 여단과 미2사단이 철수 도중 테형과도 같은 적의 혹독한 공격을 받은 끝에 수천명의 병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수천부근의 계곡을 [테형의 계곡]이라 명명했던 비군들은 그후 이군이 황성으로 빠져나온 이 계곡을 [학살의 계곡]으로 명명했다.

당시 10군 단장은 [새말]과 [학단] 일대에 접경한 이군부대에 자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인데 철수부대들은 황성을 바로 거척에 둔 [큰골] 교량 근처까지 당도했으나 이 교량을 차단하고 있는 적의 강력한 방벽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전 퇴유곡에 빠져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황성유역 북변을 동에서 서로 흐르는 뒷네강의 남쪽 언덕에 부채꼴 모양의 전진로를 점령하여 황성 북쪽과 서북방 일대를 방어하는 한편 강력한 정찰대를 편성해서 서쪽과 서남방을 경계했다. 공격부대의 후방을 보호하고 있던 네델란드군 대대는 전차 1개소대와 보병 1개소대로 구성된 긴급지원대를 출동시켰으나 이 구조대는 황성교 건너 수백미터도 전진하지 못한 처지에서 중공군 매복대의 기습을 받은 끝에 후퇴해 버렸다. 16시경에는 크크대위가 지휘하는 깊은 배레모의 미187공수연대 전투단의 G중대와 전차소대로 구성된 두번째의 구원대가 황성교 건너 5번 국도를 따라 [큰골]로 돌진하고 이와 함께 도로 양편의 능선을 따라 한국군 보병 1개대대가 공군기의 지원하에 병진한 끝에 해결무렵에 이르러선 드디어 큰골에서 적에게 포위 당한 4천여명의 우군과 합세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17시경부터선 20 - 30명씩 떼를 지은 철수부대 장병들이 네델란드군 전진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 시각부터 돌파

구 쪽으로 몰려드는 아군 철수부대 장병들은 악착같이 추격하는 적과 이들의 추격을 격퇴시키려는 너군 전차부대 및 야포부대 사이에 더욱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져 피아간의 사상자는 격증하고 철수로의 혼란과 참상은 극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도로와 교량을 단단한 네델란드군 대대의 중대 전차 전열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했다.

사선을 돌파한 장병들과 사상자를 실이 나르는 전차와 각종 차량 등이 뒤범벅되어 그 교량과 도로를 따라 그칠사이 없이 몰려들었다. 이같은 경황속에서 철수부대를 언호하고 있던 네델란드군 부대 전중에선 해가 전 뒤로는 횡성 시가지에 대한 적의 침투공격이 차츰 본격화됨으로써 대대 본부의 피습과 대대장의 전사 등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무렵 횡성시가지 일대에선 도처에서 총성이 들리고 있었고, 특히 전방의 소총중대 전차에선 전차로 육박해 오는 적을 물리치느라 경황이 없었으므로 대대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중대장은 등 뒤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유탄이 신경에 걸려 대대 작전관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그 통신 연락을 받은 작전관이 그의 천막을 나서다가 부상당한 끝에 다시 천막 속으로 기어들어와 A·B 중대에 최후소의 피습을 알리게 됨으로써 신상참은 사태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 때 화기중대의 박격포소대 전차 근처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오케이] [오케이] 하며 접근해 와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바람에 큰 혼란을 빚었으며 한쪽에서는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하는 검은 그림자들도 있었으나 이들과 맞선 어느 용감한 네델란드군 병사는 그의 오른손이 부상 당하자 이 발로 안전핀을 빼낸 수류탄을 왼

손으로 잡아 던지면서 거은 그림자등을 격퇴시키고 있었다.

전방의 A·B 중대는 대대장을 데리한 화기중대장으로부터 긴급 통신연락을 받고 21시경부터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 시키에는 그 방향으로 철수한 전방 철수부대의 철수가 거의 완료된상태이다.

그리하여 22시경까지는 A 중대가 뒷내물 강을 건너 먼저 철수를 개시했고, 그 오른 쪽 일대에 전개해 있던 B 중대는 거석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에 이르기 까지 황성읍과 그 부근에는 2사단 38연대 본부 와 4. 2인치 중박격포 중대가 잔류하고 있었으나 22시45분경 이들 지휘소와 화력지원부대가 후방으로 먼저 철수함에 따라 황성읍에는 중화기중대 및 전차부대만이 잔류하여 최종 철수부대인 B 중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제압하려는 전차포를 위시한 각종 중화기의 대응시격으로 인해 시가지는 온통 불비다가 됐다.

이러한 상황속에 최후의 사선을 돌파하느라 자정이 훨씬 넘어 서야 앞내물 강을 건너게 되었던 중대는 그 시각으로부터 무렵 4시간을 걸어서야 원주 비행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황성 철수 업호 작전에서 130여명의 인명손실을 보게 된 네델란드군 대대는 이날(13일)부터 다시 원주 서측방의 325고지에서 휴전을 벌이게 되었다.

6. 25 동난 비화

보은의 정

전쟁의 피비린내가 났는지 30년이 넘었지만 당시 보은을 한 이야기가 오늘날 까지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미담이 되고 있다.

1951년 2월 중공군 공세 때의 일이다. 공근면 도곡리 마을 입구 외 탄집(198번지)이 있었다. 쇠소리 바람이 몰아치는 늦겨울의 날씨는 제 때에 식사도 못하는 국군들에게는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땅거미가 짙어질 한 국군 병사가 다리에 부상을 입은 군인을 부축하여 울타리도 없는 이 집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다. 이튿날 본 며느리(원준희 당시 26세)가 부상당한 국군인을 알아차리고 시부모와 의논하여 얻은 방안으로 맞아 들였고 부축해왔던 그 병사는 중대장님을 잘 부탁하니 다란 말을 남기고 이듬속을 헤치며 눈도 녹지 않는 마을 뒷산 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부상당한 장교를 낚아들인 며느리 원여인과 시부모와는 찢목이 흥건한 군화와 군복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 저니고 있던 태극기와 시계 등을 부엌 돌단 사이와 천정위에 간첩놓고 원여인은 자커 남편이 입던 옷 한벌을 농안에서 꺼내 그 장교에게 입혔다. 부상치료를 위하여 약을 구하려 했으나 당시의 형편으로는 약을 구할 길이 없어 호박 속을 긁어 상처에 붙이고 숨겨둔 귀한 쌀을 씻어 먹음을 곱씹어 먹이는 등 극진한 간호를 매입같이 하였다.

그 장교의 소속은 아군 8사단 21연대였으며 계급은 중위였고 성은 윤씨였다. 그러나 윤중위가 들어오던 그 날 밤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전날 밤은 북괴군들이 들어와 자고 있었는데 초저녁 까지 조용하던 늦겨울 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중공군들이 손전등으로 방안 구석을 베풀어 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윤중위의 이불을 벗겨 보고는 이 사람이 누구냐며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이었다.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뜻밖에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중공군들이고보니 말문이 막힌채

사색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다급하게 된 시아버지 오 학섭(당시 57세) 씨는 누워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며 그옆의 여인은 여느티란 것을 설명조차 손짓 몸짓을 했다. 마치 병어리와 같이 말도 못하고 설명에 얽을 못했다 는 것이다. 후에 운중위가 말한 것이지만 통공군이 야단칠때는 이게 죽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병어리처럼 설명할 때 한쪽 다리를 싸맨 헛것에 피가 스며 나온것을 수상 적게 생각한 그들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크게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시늉을 하고 오학섭씨는 밖에 나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다는 의사를 손짓으로 하고 중공군 1명이 뒤 따르는 가운데 건너 마을(800ㄹ 거터)의 백 영소(당시 51세) 씨를 찾아갔다. 백씨는 해방전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후 귀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어를 잘하였기 때문에 단숨에 찾아간 것이다.

그들도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해서인지 통역으로 이 부상자는 오 학섭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말을 듣고는 백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위생병을 데리고 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등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백씨는 누워있는 사람은 오 학섭의 장남인데 한쪽 다리에 부상을 당한것은 어제밤에 당신네들(중공군)의 식량운반을 해 주다가 국방군의 총에 맞아 누워있는 것이라고 인계음변으로 속여 그들의 의심을 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불통과 중공군들의 직관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인한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러한 위기는 20여일간 매일같이 한 두번씩 찾아오곤 하였다. 왜냐하면 낮이고 밤이고 찾아와서 자고 가는 중공군들은 매일 다른 사람으로서 그 때마다 같은 질문과 데

답을 해야하며 총 뿌리를 들이댔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오 씨는 건너편 마을의 백씨에게 통역을 요청하는 찬으로 힌 들고 죽음을 넘기는 고비가 되었으니 오 학선씨나 그 며느리 원 씨는 큰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기를 20여일 가까이 한 어느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공군 위생병으로부터 얻은 약으로 날마다 정신을 다해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날 운 중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운 중위의 좁쌀밥에 약간의 씹이 들어있는 것을 본 오 학선씨는 며느리가 못 마땅하여서인지 아니면 마을 청년방위대에 있다가 경찰관들과 함께 피난간 아들 생각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밤도 새로 온 중공군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자 백씨를 불러 이 사람(운중위)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 줄 것을 백씨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그토록 친절하게 보살피던 오 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떨어지자 운중위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았고 며느리 원어인과 백씨도 이리 등질하여 놀라움을 근치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었다.

백씨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던 중공군들은 백씨의 엉뚱한 말에 수공이 관다는 듯 서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백씨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자고 갈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백씨는 기분이 몹시 상해있는 오 학선씨에게 운중위의 거처를 지켜내(백씨) 집으로 옮겨도록 하테니 두번 다시 그런말을 입밖에 내지 않아 달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그날밤 뜻밖의 위기를 모면한 운중위는 그 길로 백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수입을 보낸 운중위는 상치도 거의 완치단계에 있었다. 백씨의 집에서 다시 그 마을 정양서씨의 집으

로 거처를 옮겨 수일간을 보내다가 3월 중순경 마을에 전군한 미군 해병대 수색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 나갔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이들의 뇌리에 6.25의 악몽이 사라질 무렵이었다.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돌부처거리의 야전 훈련장에 나와있던 3성장군 윤성민 씨는 옛날 공근면 도곡리에서 겪었던 그 끔같은 옛일이 불현듯 생각나 부하장교를 도곡리에 보내 오 학섭씨와 백영소 씨가 살고 있는 개를 알아 보도록 지시했다. 비록 오랜 세월을 소식없이 흘러보내긴 했었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오 학섭, 백영소씨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당시는 벼룩 중위의 몸으로 그들의 간호와 도움으로 부상치료를 받아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는 3성장군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되며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중공군의 총에 쓰러져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윤장군은 감회가 깊었다. 더욱 가까운 곳에 와서 훈련을 참관하는 길이었으니 그 감회가 더욱 컸다.

명령을 받은 부하 장교(대령)는 20여리 떨어진 도곡리 마을을 찾아갔다. 장교들은 백영소 씨를 찾을수는 있었으나 백씨가 동남 때 윤백만이란 사람은 기억하고 있지만 윤성민이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일단 훈련장으로 되돌아 오는 길에 오 금세(42세)란 사람(오 학섭의 조카)을 만나 그의 형수(원 준희)댁으로 안내 되었다. 백씨가 기억하고 있는 윤백만이란 사람은 그 당시 윤중위가 가명으로 쓴 이름인이 나중에야 밝혀졌다.

보고를 받은 윤장군은 그말이 맞는다면 이튿날 낮에 콩 타작을 하고 있는 도곡리를 찾아 갔다.

초가집 마당에는 금빛이 찬란한 3성장군의 자동차와 윤장군을 비

못한 10여명의 막료 장교들(장성 및 대령급)이 죽은 것이 나타나자
은 성민장군과 원여인(버너리)의 27년만의 해후는 극적인 장면이 아
닐 수 없었다.

20대 청년은 50을 바라보는 3성장군이요 치료를 극진히 하던 원
여인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 깨를 더
씩 꺼 안은채 잠시 동안은 할말도 있고 원여인의 시부모도 눈물을
글 씩이며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원여인 집에 들렀던 윤장군은 건너마을 백 영소 씨 집도 찾
아 해후의 정을 나누었다. 그로부터 2-3개월 후에 원여인에게 전
앞에는 윤장군의 정성으로 이룩된 보은의 집(대저 150평, 건평 23
평)이 지어졌고, 유타릭도 있는 백 영소 집에는 시멘트로 된 담장
과 아담한 광이 하나 지어져 보은의 정표물이 되고 있다.

바로 6. 25의 그날의 윤중위가 3성장군이 되고 84년 현재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윤성민 씨로 이 날이 있기 까저에는 원여인의
정성어린 간호와 고통을 함께 한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밀바탕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후 이 두 가정은 서로 각별한 인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 학선
씨는 사망했으며 백 영소 씨는 공근면 오산리에, 원준희씨는 도
곡리에 현재 살고 있다.

박쥐굴 공비소탕

1950년 9. 28수복 이후 며칠 후퇴하지 못한 공산군 잔당 10명이
이곳 박쥐굴(일명 세계굴)에 숨어 있었다.

이 박쥐굴은 일제때 금광을 하던 개굴(坑窟)로 폐광이 된 후
굴 속에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어 박쥐굴이라 주민들이 불리왔던 곳
이다.

이곳은 오은산의 한 골짜기로서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한 곳이니 공비들이 은신하기에 알맞는 곳이라 볼 수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공비들이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청년방위군을 비상 소집 하였는데 당시 공근면 방위군 대장이 경찬(작고) 대위와 소대장 태근만, 조규천(작고), 박주병(작고) 등은 대원 170여명과 경찰및 학도병 70여명을 이끌고 선별 전략을 어둔터에서 세웠다.

공비들은 낮에는 골속에서 은신해 있었고 밤에는 번기로 내력과 식량과 부식을 훔쳐갔는데 이들을 공격하기에는 쉬운일이 아니었다.

첫째는 공비들이 높은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주민의 일기일동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밤에는 약탈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가 힘들다.

셋째는 수적으로 막강하고 우세하나 전투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는 작전지식도 또한 없으며 무기로는 카빈과 M1인데 사격능력과 명중율도 적었고

넷째는 많은 병력을 이동 배치하는 데는 적에게 낮엔 노출되기 쉬고 밤에는 겁을 먹는 시련이 많았다.

다섯째는 만일 작전에 실패하여 우리측에 희생이 클 연력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역군인이 아니므로 일사분란한 작전 명령에 대원이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먼저 어둔터 세계골 입구에서 우리의 병력에 대한 능력과 또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점검

하고 확인을 되풀이하였고, 이곳에 사는 소대장 태금만씨가 처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해 가미 새신한 작전을 짰다.

특히 대원끼리 이합이 되었을 때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각자의 총기 점검과 실탄 배분으로 준비를 완료하고 각각 소대장 뒤를 따라 작전에 들어갔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출발한 모든 대원은 그날밤 숲속으로 거어서 박쥐굴 맞은편 산에 도착하여 밤을 새웠는데 10월의 날씨는 밤을 새우는 대원들에게 추위가 연습해 왔다.

날이 새어 건너편 박쥐굴 쪽은 아무런 관측해도 공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덧 점심 때가 되었다.

그런데 박쥐굴에서 300ㄹ 쯤의 위 쪽에서 움직이는 공비의 모습이 나타나자 산이 험준한 현곡이라 직선 거리로는 200ㄹ이내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도 없이 일제 사격이 되었다.

박쥐굴 일대에 무조건 사격을 했는데 그것이 비전투 경험자의 전투였다. 거함에 총소리를 냈으니 적이 보이던 안보이던 그저 사격만 하였다.

원래 많은 병력이었기 때문에 적들은 크게 반격도 없고 숨어서 있었다고 한다. 3일간을 공격했는데 마지막날은 적의 반격이 대단했다고 한다. 쫓기다 지친 적들은 마지막 반항으로 굴속에서 나와 반격을 했으며 우리 대원들도 엄호 사격과 야음을 틈타 박쥐굴 부근으로 수색전을 폈다.

3일간 의 소탕작전은 사실 4명, 생포 4명의 전과를 올렸으며, 아군측은 사망 1명, 부상 2명이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의 성과를 올리기 까지는 이 지역 산세와 처형에 익숙한 태금만(당시, 소대장) 씨의 작전과 공로가 컸으며 거근도 태씨는 박쥐굴 공비

소탕의 산 증인으로 현재 이둔리에 거주하고 있다.

젊은 영웅들

1950년 6월 25일 미명에 발발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란은 전국토를 전쟁의 참화로 물들게 하였고 이곳 감천면 매일리 사람들도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먼곳으로 혹은 깊은 산속으로 난부어대하여 피난을 떠났다. 9월 28일 서울수복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찾았지만 살벌하고 찬담하기 이름데 없는 가운데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태극산 깊은 산으로 은신한채 여차 패주하지 못한 패잔병의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으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감천면 소재지이기도 한 이 마을의 치안유지는 당시 황성경찰서 감천지서의 순경 4명이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4명의 경찰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자 주민들의 자활에 의한 치안의 유치가 필요하여 이에 10원 초의 의용경찰을 조직, 자유대를 발족하였다.

정예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또한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향토애와 조국이 피 끓는 젊음으로 뭉친 8명의 애국청년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은 김 문걸(당시 30세: 감천면: 현 청일면 유평리) 씨를 대장으로 30명의 대원은 군번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은채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서 노획한 무기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진련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부역자를 색출 건거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활동하고 구리봉 어달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

하여 일망 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인 10월말 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야간 순찰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저녁 무렵 태기산 일대에 도피 은신하다가 처리산의 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수녀상의 최택군(주민들은 연대 이상의 병력으로 증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입전을 벌이게 된다.

비록 패잔병이거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50여명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1주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거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지는 다시 시가지전으로 불탔다. 본격적인 전투는 마을 앞 구터봉에서 시작되어 반나절이 삼거. 전초리 까지 쫓고 쫓겨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이담산 전투를 끝으로 자치대원들은 날이 밝자 하산하여 황성쪽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돌벌에서 북괴병의 대규모 기습을 받고 응전하나 탄환이 부족하고 1주일의 전투를 치른 뒤라 역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8명의 대원중 자치대장 김 문걸을 비롯해 대원 박준금(당시 20세 학생), 노성빈(당시 20세), 이의봉(당시 27세), 신계목(당시 19세), 박병국(당시 22세 농업), 홍남성(당시 22세) 등 7명이 순국하고 홍석규(현 55세 춘천시 거주)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그날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홍씨와 같이 경찰관이었던 정병군순경도 총상을 입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오광열씨가 업어 인가에 피신시켰고, 홍씨는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진 것을 북괴군이 발견하여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죽창으로 마구 찢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기적같이 회생했다고 술회한다.

또한 돌돌벌 접전 전날 구릿봉 협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방위장교 이 상목 씨의 투혼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름없이 사라져간 젊은 영웅들이 자랑스러운 신화, 용맹스러운 순국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6. 25동란이 발발한지 15년이 지난 1965년 10월 1일 당시 갑천 면장 한 응학 씨와 면민들이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주민들이 각종 공동작업으로 기금을 마련)서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7층의 콘크리트 탑을 세웠고 1984년 이곳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이전하여 정화한바 있다.

〈자위대 조직상황〉

위원장 : 이 달 성

부위원장 : 임 원 식

총무부장 : 이 윤 식

감찰부장 : 조 원 식

경비부장 : 권 오 선

조 직 : 3개 분단 30명 추정

〈의절자 현황〉

(순 국)

대 장 : 김 문 걸

대 원 : 박준금 노성빈 이의홍 신기묵 박병국 홍남석

(부 상 자)

대 원 : 홍 식 규

경 찰 관 : 정 병 균

6. 25 기념물

0 층 혼 탑

횡성읍 시가지와 드넓은 화성벌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선강이
곱어 보이는 횡성읍 읍하리 3. 1공원내에 위치한 충혼탑은 19
68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6. 25동란 및 월남전쟁 등 대공 전
선에서 반공투쟁을 하다 순국한 본군 출신 군경민의 영령들을 추
모하기 위하여 횡성군 충혼탑 건립위원회가 세운 것으로 높이 0.6
㎞의 거단위에 5.25㎞의 백색탑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충혼탑]의
제자는 전 박 정희 대통령이고 이 은상 선생의 글과 김 기
승 화백이 글씨를 썼다.

〈비 문〉

바라볼수록 강산은 아름답는데
민족의 고난은 어찌그리 남턴고.
그러나 아무런 서련이 닦쳐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조국을 위해 분타는 사랑
불의를 무 쪼르는 신념과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 왔었고
또 그대로 영원히 이 곁에 기다가
1950년 6. 25동란 이후로
월남의 반공 전선에 이르기 까지
생명을 던져 피로서 항쟁한 이들
그중에서 이 고을 군, 경, 청년들
확탕의 후에다운 정열과 의기로
이 땅 겨레의 거룩한 전통이 되어

천추 만대에 사타저저 앉으리니
영령들이여 찬송을 받으옵소서.
여기 편히 쉬시옵소서.

1968년 6월 6일

홍성군 충혼탑 건립위원회 세움

0 네델란드 참전기념비

한국동탄 참전국가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건립한 네델란드 참전기념비는 우천면 우항리 영동고속도로 세말 인터체인지에 소재한 홍성군의 전적지 명소중의 하나이다.

이 비는 전국에 산재한 참전 16개국의 기념비중 하나로 1975년 3월 25일에서 9월 27일 까지 국방부가 건립 제막하여 1975년 10월 29일 홍성군(내무부)에 이관 군이 관력하고 있다.

네델란드를 상징하는 기대한뿔차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비를 이곳에 세운것은 네델란드군이 홍성을 중심으로 가장 격렬하게 활약하였고 또한 홍성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바 있어서 그 의미 깊은 이곳에 건립케 되었다.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참배하고 네델란드 관광객이 필히 참배하는 이곳은 안보관광 및 교육 단지로 개발이 시급하다.

<비 문>

충성과 용기를 신조로 삼는 "오렌지" 공의 후예들
붉은 천막자와 싸우다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참 전 약 사〉

네델란드 군은 1950년 정역의 십자군으로 파견되어 용전분투하다가 육군은 1954년 10월 18일, 해군은 1955년 1월 24일 각각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이다.

여기 여러 유우연회원국 국민에게 그 뜻을 전하고자 그대의 남긴 찬란한 전력과 계획관의 이트를 새긴다.

0 M.P 오우덴 중령 현충비

홍성읍 읍하리 3. 1 공원내에 있는 이 비는 6. 25동란시에 평화의 십자군으로 참전했다가 51년 12월 12일 13일 홍성전투에서 전몰한 네델란드군 부대장 마티뉴스. P. 에이덴 오우덴 중령과 그 휘하의 장병들이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 사령관이 홍성읍시가가 곱어 보이는 시가에 세운 높이 4m의 압석으로 독로 된 충혼탑이다.

〈비 문〉

단기 4284년 12월 12일 13일 홍성지구 전투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다가 애석하게 전몰한 주한 네델란드군 부대장 마티뉴스. 피. 에이덴 오우덴 중령 이하 네델란드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현충비를 건립함.

1956년 10월 12일

제 1군 사령관 육군대장

백 선 업 세 움

0 매일터 충혼탑

갑천면 매일터에 있는 이 충혼탑은 6. 25 동란 당시에 의용

경찰은 조직, 마을 치안유지에 힘쓰던 중 패주하던 괴뢰군과 접전하다 전사한 이 지방 젊은이 7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당초 7층의 콘크리트 탑(높이 4.55)으로 1965년 12월 1일 주민들의 노역을 해서 얻어진 성공으로 세웠으며 그후 획성-서석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어 1984년 감천고교 입구로 위치를 변경하여 재건하였다.

비 문

6.25 事變 勃發 戎奴 侵略 橫暴 無變
 被 害 尤 甚 烽 起 邊 兵 救 勢 功 迫
 少 年 學 兵 義 憤 沖 天 敵 陳 突 入
 左 衛 石 突 戎 奴 殺 傷 玉 碎 義 節
 鎮 鄉 捍 護 神 醫 嘆 不 已 祈 願 瞑 福
 4 秋 柳 頌 矣

淸州後人 韓 龍 鶴 撰

甲川面民 一同

(6.25사변을 도발한 북괴의 횡포가 극심하여 그 피해가 너무나 많은 자락 여기 고이 잠든 학병들은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고자 봉기하여 일어섰다. 연일 계속되는 격전속에 수 많은 적을 물리쳤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색의 전운에도 오히려 꽃다운 소년들로 구성된 학병들의 의분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적진에 뛰어들어 많은 북괴군을 무찌르고 그 어린 넋을 의로운 절개를 지켜 산화 하였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몸과 뜻을 비쳐었으니 그 거룩한 정신을 천추만대에 두고 같이 행복을 밟고 노래하리라.)

0 네델란드군 전몰 기념관

1961년 2월 12일부터 13일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북회군과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네델란드 부대장 마티뉴스P에이덴 오우덴중령 이하 부대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그 당시 적과 싸우다 장렬히 최후를 마친 가톨릭교회 자리이다 더 제 629의부중대 종군목사 어드레이 스미드 씨가 뜻을 모아서 기념교회를 건립하였다.

그 후로 황성군은 오우덴중령의 고향인 카스텔스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10월에 두 나라의 도시에서 상대한 기념식을 하며, 그 행사에는 주한 네델란드 대사관 비롯한 오우덴여망인들이 참가하며, 계획 있을 때마다 그 때 그분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 기념교회를 짓곤 했다.

이 기념교회 건물은 황성가톨릭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몇해전 교회신축 관계로 거금은 헐리어져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